구역예배 및 가정예배(2020년 12월 세 번째 주일)

교회의 사명은 선교에 있다 -누가복음 15 장 31-32 절-

- * 마음문 열기(Welcome)
-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나눠봅시다.
- * 찬양하고 경배하기(Worship)

저 들 밖에 한밤중에(찬123)

- * 말씀 나눔(Word)
- 1. 이번 주일 설교와 누가복음 15 장 31-32 절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은 내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2. 오늘은 "한 아버지와 두 아들" 이야기의 3 부입니다.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 잔치에 참여할 것을 권면합니다. 만약 내가 첫째 아들이라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나눠보도록 합시다.
- 3. 이 비유 말씀의 결론은 첫째와 둘째가 함께 아버지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교회란, 둘째 아들과 같던 우리가 먼저 구원을 맛보고, 아직 둘째 아들과 같은 이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런 점에서 설교자는 교회의 패러다임 변화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 4. 오늘은 안산제일교회 창립 58 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더욱 힘차게 선교적 삶을 살기위해서 필요한 결단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특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일지 나눠보도록 합시다.

- * 좋은 소식 알리기(Witness) 복음의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합시다.
- * 함께 기도하기(Work of Prayer)
- 1.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2. 원로목사님께 강건함을, 담임목사님께 사도 바울과 여호수아의 영성을 주소서.
- 3. 가정같은 교회가 되고 교회같은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 4. 교회의 선교 사명을 힘차게 감당하게 도우소서.
- 5. 민족의 평화통일, 외교와 국방 안정, 경제 회복을 허락하소서.
- 6.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확산이 멈추게 하옵소서.